

가계의 저축 및 차용행태에 관한 연구

- 청주시 가계를 중심으로 -

심 영

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일반적인 가계는 가계의 생활주기단계에 따라 또는 가계가 처하고 있는 특정상황에 따라 소득과 소비간의 불균형 상태를 경험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가계는 저축 또는 차용이라는 경제행동을 통하여 그 격차를 조절함으로써 가계 구성원의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다.

가계의 저축은 일반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한 것으로 정의된다. 어떠한 동기와 목적하에 행해지는 저축이든간에 가계의 기본적인 저축의 목적은 미래의 소비를 위한 것이며 생활표준을 유지,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계가 획득한 소득은 저축과 소비성이 있다. 한편 지난 20여년간 가계경제상에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현상중의 하나는 가계에 의한 차용이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차용은 저축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여 현재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부의 저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가계가 저축과 차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저축 및 차용행동은 달라질 것이며 바로 가계가 누리는 현재의 소비 뿐 아니라 미래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축 및 차용에 대한 가계의 태도, 목적, 행태와 성향을 조사함으로써 저축 및 차용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계의 경제복지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주시에 거주하는 343 가계를 대상으로 그 가계의 경제관리를 담당하는 자에게 자기기입 방법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계는 저축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수의 가계들이 저축에 대해 그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었다. 저축의 주된 목적은 자녀의 교육비였으나, 차용의 주된 목적은 토지나 주택구입자금이었다. 대부분의 가계들이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가계의 약 3/4 정도가 차용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저축액과 월 평균부채상환액은 전국의 도시가계들의 평균액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저축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저축의 필요성과 중요성, 나아가 저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더욱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가계로 하여금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적극적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금융의 제도적, 정책적 유도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축의 주된 목적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었다. 그러나 노후를 위한 저축계획 또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계는 차용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차용의 효과적인 사용은 가계의 경제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가계의 허용가능한 재정적 범위내에서 계획적이며 적절한 차용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계의 경제복지 실현과 향상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실현의 한 방법은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이러한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곧 저축과 차용이라는 경제행동의 균형과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